

홍천신문

2024년 10월 (제125호)

행복한 어르신! 가고싶은 복지관! 함께하는 지역복지!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윤재
창간일 2014년 5월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복지관 소식 (1)

2024년 제5회 홍천군 선배시민 대회, '선배시민, 공동체를 디자인하다!'



10월 4일,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35명과 복지관 이용회원 40명이 모여 제5회 홍천군 선배시민 대회를 개최했다. 선배시민이란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노인상을 뜻하며, 이번 대회는 선배시민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 및 투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대회는 복지관 음악난타반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신나는 음악과 역동적인 난타에 큰 호응을 보였다. 이후, 현윤재 관장과 신동천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선배시민의 소중한 역할과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성과공유 시간에는 치매 예방, 노인 인식 개선, 요리 나눔, 말벗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성

과가 발표되었으며, 각 활동의 구체적인 효과를 공유하고, 제작한 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어진 정책 발표 시간에는 총 3개의 봉사단이 제안한 정책안이 소개되었다.

연번	구분	정 책 안
1	기억 두드림	신중년 일자리 활동의 기간, 종류, 관리 등 포괄적 확대를 통한 경제 활동 및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
2	바로 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대상 교통비 지원
3		70~80대 어르신 대상 분리수거 교육 체제 마련
4	팜&쿡	고령자 복지주택 대중교통 서비스 및 식당, 마트 등의 편의 시설 확충

그 중 '신중년 일자리 활동의 기간, 종류, 관리 등 포괄적 확대를 통한 경제 활동 및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라는 정책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 정책안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기간 연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재취업 및 사후 관리 등의 개선으로 신중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대회는 선배시민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선배시민들은 더욱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대회가 끝난 후, 서로의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앞으로의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소통은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CONTENTS

01 - 복지관 소식 (1)

03 - 지역 축제

05 - 업체 탐방

07 - 단체 탐방, 노년기 삶

02 - 복지관 소식 (2)

04 - 지역 행사

06 - 인물 탐방

08 - 인생 칼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SN 사회복지법인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홍천군노인복지관

복지관 소식 (2)

2024년 추석 행사 ‘추석애(愛) 함께해욧!!!!’



지난 9월 추석을 맞이하여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9월 12일에는 북방에서 고령자복지주택 어르신 100여 명을 모시고 웃음 힐링 공연, 사주풀이, 한가위 꾸러미 전달 등을 진행하였다. 다음 날인 9월 13일에는 흥천읍에서 500여 명의 이용회원 및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척사대회, 송편 빚기, 프리마켓 등을 개최하였다.

노인복지관장배 및 이용회원, 직원 스포츠 친선경기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바둑, 탁구, 당구 등 3종목으로 2024년 노인복지관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바둑은 개인전, 탁구는 단체전, 당구는 단식과 복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용회원과 직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오목, 탁구, 당구 친선경기도 마련되었다. 이번 관장배 체육대회는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24년 어르신 검도 대회 및 페스티벌 준우승



9월 5일,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검도회가 주관한 어르신 검도 대회 및 페스티벌에서 어르신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쌓은 실력과 노력을 발휘하여 준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웰다잉 프로그램, 장묘 문화 체험 및 장수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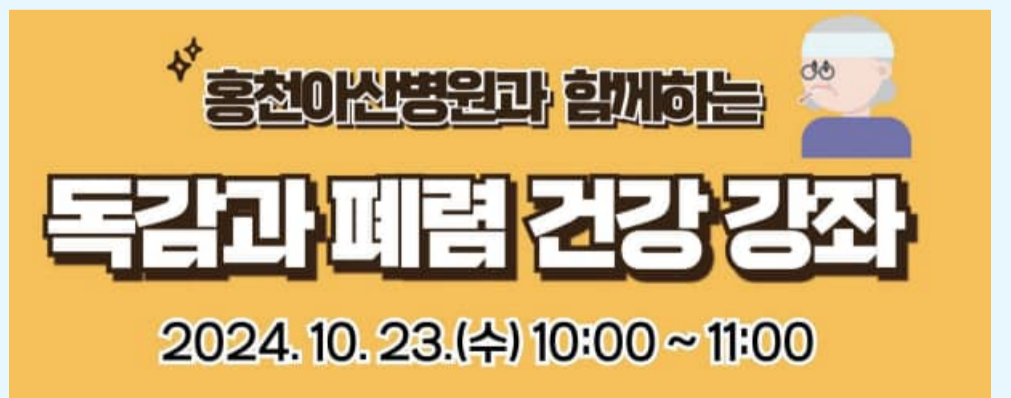
10월 8일, 웰다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춘천 안식원과 부활성당추모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장묘문화를 이해하는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10월 15일에는 무병장수의 염원을 기리며 장수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이다.

너브나래인 가을 나들이



10월 15일과 17일,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이하 너브나래인 82명을 대상으로 춘천 남이섬으로 나들이를 떠난다. 이번 나들이는 너브나래인의 노고와 관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추진되며,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유대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천아산병원과 함께하는, 독감과 폐렴 건강강좌



10월 23일, 홍천아산병원과 연계하여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독감과 폐렴을 주제로 두 질환의 차이점, 증상, 치료 및 예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문의: 흥천군노인복지관 033-430-8799)

지역 축제 (1)

홍천 듀오가족농원 배시시 축제

올해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8월 31일, 홍천농촌문화터미널 주최로 '배시시 축제'가 홍천군 남면 '듀오가족농원'에서 개최되었다. 농촌의 작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농촌 축제로, 농장주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가 주인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특징이다.

축제에서 이름짓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시시 축제'는 이름에서 배와 미소를 연상시키며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행사로, 그 이름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축제 당일, 익어가는 배나무 아래에서 홍천 오키리나 팀 흥카리나의 연주로 시작해, 무네미 농장 문기운 대표의 클래식 기타 연주가 배나무 농장에 울려 퍼졌다. 이어 보물찾기, 천 장식 만들기, 경품 추첨, 배 음료 무료 시음, 그리고 점심으로 제공된 초스테인까지 알차게 진행되었다. 또한, 과일값이 치솟는 요즘, 듀오가족농원

에서는 배따기 체험도 열려 참가자들은 상자 가득 배를 따는 기쁨을 누렸다.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제수용으로 아직 익지 않은 배에 식물 호르몬을 사용해 성장을 촉진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듀오가족농원 김준옥 대표는 벌과 바람을 통한 자연수정 방식의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고 있어 더욱 건강하고 맛있는 배를 맛볼 수 있다고 하였다.

농촌 지역 농가의 최대 난제는 작물을 생산해도 판매처가 없다는 점이다. 이번 축제는 배나무 분양이라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지역 농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이 귀농·귀촌에 대해 고민해 볼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농촌의 매력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문객들은 직접 농작물을 체험하고, 지역 농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촌 생활에 대해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자란 과일은 그 맛이 뛰어나데, 홍천의 과수 생산 농가들도 맛과 품질 면에서 자랑할 만한 명품 홍천 과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농촌 축제를 통해 홍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행연 기자
(bonbon2202@naver.com)

지역 축제 (2)

제28회 홍천군 노인의 날 축제

노인의 날의 유래는 각 나라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국제 기념일과 함께 1991년 유엔총회에서 권고안을 통과하여 1991년 10월 1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0월 2일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다. 노인의 날이 제정된 배경에는 사회 변화와 함께 노인 인구 증가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홍천군 노인의 날 축제

홍천군에서도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홍천읍 분회는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오늘 남긴 발자국이 후손들의 길이 되리라'라는 강령으로 10월 2일(수) 홍천군 종합체육관에서 축제를 열었다.

이날 홍천읍 총 49개 경로당 중 모범 사례로 4개 경로당이 선정되어 우수 경로당 표창을 했다.

우수 경로당 표창을 받은 홍천읍 희망1리 경로당(회장 남궁창선)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5년째 지속적으로 건강 체조를 해 회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개인 돈으로 경로당에 CCTV를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해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축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를 주최한 홍천읍 분회(회장 현종길)는 손주 세대에게 충효 사상을 계승하자는 의미로 경로당 어르신과 유치원생이 함께 손잡고 6.25 기념탑에 헌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또한, 홍천군의 진달래 묘목을 지속적으로 심어 모든 세대 간의 연결과 이해를 촉진하며, 노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복여 기자
(boy1145@hanmail.net)

지역 행사 (1)

악자지깅 홍천 야시장

지난 8월 9일부터 특별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악자지깅 홍천 야시장'이 중앙시장에서 개최되어 다가오는 10월 26일까지 이어진다. 맛있고 저렴한 시장 음식과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야시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홍천중앙시장 이병기 상인회장과 만나 그 얘기를 들어보았다.

[악자지깅 홍천 야시장이란 무엇인가?]

홍천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일원에서 매주 금, 토요일 저녁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주류를 주제로 하여 운영하는 사업이자 행사이다.

[홍천 야시장만의 이점이 있는가?]

1만 원 이하의 저렴한 시장 안주와 생동감 넘

치는 분위기 속에서 부담 없이 술 한 잔을 사고, 같이 먹을 수 있으며, 주류 문화뿐만 아니라 노래자랑, 댄스 경연, 장기 자랑 등 가족과 함께 오락을 즐기며 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천중앙시장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지난 코로나19의 여파와 시장의 경제를 이끌어 주던 군 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 활동 위수 지역이 홍천에 국한된 것이 해제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야시장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일단 이번 해에 사업을 잘 마친 후,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좀 더 나은 기회를 통해 내년 4월 말경에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야시장 사업을 통해 어떠한 점을 바라는가?]

홍천군민에게는 오락과 관람의 기회를, 홍천 중앙시장 주변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가 및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동식 기자
(dong-sik@hanmail.net)

지역 행사 (2)

제12회 홍천군 명랑운동회

2024년 9월 21일, 홍천군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한재환)는 홍천군종합체육관에서 '제12회 명랑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소중한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아이들과 부모, 조부모, 그리고 현직 교사들이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행사였다.

또한, 이날 여러 내빈도 참석해 어린이집 아동, 가족, 교직원들을 격려하며 응원했다.

명랑운동회는 홍천군의 어린이집들이 참여하여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전통 있는 행사이다. 연령별 아이들의 경기는 물론, 부모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기와 조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의 깜짝 경기도 진행되었다. 운동회의 마지막 하이 라이트인 이어달리기와 줄다리기는 부모님들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즐거움을 더했다. 서로 경쟁하며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웃음을 자아냈고, 바쁜 일상에서 한 줄기 빛처럼 시원하고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행사였다. 또한, 각 경기마다 제공된 경품과 푸짐한 선물은 운동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응원전도 흥미로운 볼거리가 되었다.

현대 사회에는 경제적 부담, 여성의 사회 진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문제



가 얽혀 있어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마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아이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명랑운동회와 같은 공동체의 노력은 다

음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 데 기여하며, 그들이 나중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을의 작은 운동회가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의 장이 되었고, 함께하는 기쁨과 협력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선숙 기자
(ds2sja@hanmail.net)

업체 탐방 (1)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방앗간 막국수

지역 발전을 위해 홍천군에서는 행정적 및 경제적 지원으로 청년들이 홍천에 유입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중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한 가게도 방문해보았다.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않는 이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입이 많아야 자녀 교육과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농어촌 지역의 청년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농어촌에서도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고민을 잘 해결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심어 준다면, 우리 지역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다.

홍천군의 청년 지원 정책 현황

홍천군은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홍천군 청년창

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창업 시설 개선비와 임대료를 지원하여 지난해까지 47명의 청년이 창업했으며, 제조 도소매업 26개소, 음식점업 12개소, 서비스업 8개소, 예술사업 1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살기 좋은 청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꿈을 향해 도약하는 홍천 청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이 일하고,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에도 홍천군은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15개 분야의 청년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좋은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앗간 막국수'를 찾아서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방앗간 막국수 식당을 방문했다.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이 있는 한승재 대표는 창업환경이 적합한 홍천을 선택했고, 기초 창업자금이 부족할 때 홍천군의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알게 되어 지원을 받아 영업장을 오픈하게 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한 결과 현재 영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막국수와 비빔국수에 사용되는 육류는 모두 홍천의 한우로, 막국수 그릇 바닥에는 '노인 공경'과 '나라 사랑'의 글이 새겨져 있어 노인들에게 잠시나마 행복을 느끼게 하고자 했다. 한승재 대표는 매달 홍천군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생신 잔치를 챙기며, 창업자금을 지원해 준 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심연흠 기자
(simmusic@naver.com)

업체 탐방 (2)

홍천한우 사랑말 행복한 영농조합 (3)

사랑말 영농조합은 수입 소고기가 들어오던 때를 기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소고기 시장이 변하면서 농가들이 모여 자구책으로 법인을 만들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공장을 만들었고 농가 직영 한우 식당을 만들면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평생 소를 키우고 농사짓던 사람들이다. 그런 농민들이 소비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사무실을 만들고 직원들을 통해 관리하게 되었다. 혼자 소를 키웠으면 이런 형태의 사업은 꿈도 못 꾸는데,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한우 식당 사업을 시작하며 여러 다른 지역 매장을 견학했다. 이를 통해 식당 사업의 방향을 잡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어떠한 매장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영농조합이 많은 수익을 올리

는 것에 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이미지는 긍정적이기보다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잡혀 있었다.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농가소득은 올려주되 식당 사업으로 돈을 벌지는 말자'라는 경영 철학을 세우며 지역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 소를 키움으로써 농가에 높은 소득을 보장했지만, 소고기를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오히려 적은 이윤이 생기더라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산모들에게 좋은 소고기를 지원하며, 행사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합원 대표로서는 어떠한가?]

대표임에도 따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 조합원 대표에게 월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다들 놀라곤 한다. 월급 받고자 하는 일

이 아닌, 사명감으로 갖고 임했기에 16년 동안 대표직을 맡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여러 사람과 모여 함께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좋게 봐주는 게 큰 원동력이 된 거 같다.



〈나종구 대표〉

나종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견고한 철학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리더로서, 직원과 농가, 지역주민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깊어 그의 경영 방식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람과 지역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앞으로도 홍천을 대표하는 한우 조합으로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김순화 기자
(hereme50@naver.com)

인물 탐방 (1)

희망의 씨앗, 지체장애인협회 이병길 부지회장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인 혈우병 중증 A와 소아마비 중복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에 많은 환원을 하여 기부 천사로 널리 알려진 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 이병길 부지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기 자: 주사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신가요?

이병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지는 것에 신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 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니 감명 깊습니다. 라디오 사연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병길: 어느 날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을 듣다 문득 제 이야기가 환우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고 신청한 사연이 라디오에 소개됐을 때 무척



〈이병길 부지회장〉

기뻐했습니다.

기 자: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어떠한 도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병길: 자동차 운전면허에 도전했고,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외에도 바둑, 장기, 수영, 화훼 장식에 도전해 대히

에서 상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쌀을 구매해 어려운 가정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눔의 씨앗이 제 삶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기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병길: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 정신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배우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병길 부지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될 것이며, 그의 나눔 정신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의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화영 기자
(kimhy45021@daum.net)

인물 탐방 (2)

귀촌 10년 차, 꽃그리다 공방 서행연 대표 이야기

수도권에서 한 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홍천은 귀농·귀촌 특구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오늘은 홍천으로 귀촌한 지 10여 년이 된 서행연 대표를 만나, 천아트를 다루는 '꽃그리다' 공방을 운영 중인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기 자: 천아트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사: 5년 동안 펜션을 운영하며 틈틈이 홍천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 자격증도 하나하나 취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펜션을 그만두게 되었고, 천아트를 접하게 되면서 취미로 그리던 그림이 본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기 자: 천아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사: 천아트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천, 플라스틱, 유리, 기와 등 다양한 재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미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 자: 천아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강사: 천아트의 큰 장점은 내가 그린 그림으로 낡은 가구나 재료들을 재탄생시킬 수 있고, 분위기도 한층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물감 성분에 본드가 포함되어 있어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에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습니다.

기 자: 어르신들도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강사: 그림 그리기는 활동은 손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근육 발달과 치매 예방, 그리고 관찰력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적합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그리다' 공방 서행연 대표의 이야기는 많은 귀촌인에게 큰 영감을 준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갈 용기를 가진 그의 선택은 여유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활동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영감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

정미진 기자
(pearlchong@naver.com)

단체 탐방

대한노인회 흥천군지회에 대해

대한노인회 이형주 흥천군지회장은 1943년 흥천에서 태어나 농협에서 근무한 후, 1998년 퇴임하였다. 이후 테니스 협회장과 게이트볼 연합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대한노인회 흥천군 지회장으로 활동하며 25,000명의 노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형주 지회장>

주기적으로 10개 읍·면 경로당 회장단, 이사진이 모여 흥천군 노인들의 활동과 행복한 노후 생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흥천군 205개 경로당 노인 대학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인 대학의 활성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노인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 힘쓰고 있다. 총 98개 경로당에서 15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진 30여 명을 배치해 바리스타 자격증반, 자서전, 스마트폰 교육, 독서, 미술, 제과·제빵 등의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2023년에 선정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총 2,109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봉사활동과 불우이웃 돕기를 포함하며, 현재 14개 봉사단에

서 280여 명의 노인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흥천군 지회는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어려운 가정에 기름과 연탄을 나누고 있으며, 2023년에는 튀르키예 지진 및 강릉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흥천군 노인회장기 제3회 한궁 대회 체육관 개최

8월 22일 목요일, 흥천군 노인회장기 제3회 한궁 대회가 10개 읍·면의 참가로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매년 열리는 한궁대회는 갈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각 읍·면의 대표 선수들이 건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주었다.

종합 우승은 영귀미면, 단체 우승은 삼현리가 차지하며, 참가자들은 큰 박수를 받으며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노년기 삶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소중한 삶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고 말한다. 인물도, 재산도, 학력도 그렇다. 더 깊어지면 살아 있으나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모든 것이 다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현실에서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가?

P 씨(69세, 충북 충주)는 학교 동창회에서 졸업 50주년 기념모임 안내를 받고 망설이다가 졸업 후 처음으로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다.

특별한 행사라 그런지 제법 많이 참석했다. 둘러앉아 학창 시절 이야기를 주로 나누다 자연스레 지금 사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학교 때는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엄청나게 성공해서 동창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다 반갑고 즐거운 얼굴인 것 같지만 언뜻언뜻 스쳐가는 그들은 숨겨지지 않았다.

P 씨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았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삶이었구나 싶었다. 학창 시절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였던 동창들의 삶에 비해 자신의 삶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

만인 것 같았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

2020년~2022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 국가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 2020~2021년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단지 29.9%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아동·청소년 56.6%, 청년 41.8%, 중장년 38%에 비해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 노인의 삶은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초라한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세대이고 국가 발전에 적잖은 이바지를 한 세대인데 그 결과는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내팽개쳐진 처지가 되었는가?

'상대적'을 극복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상대적인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위의 지표들은 나아질 수 없다. 사람들은 상대적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절대시한다. 상대적인 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스스로 자기합리화한다.



<해를 바라보며 돌고 돌다 결국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성에 갇혀 자책하고 위축되면서 결국 땅속으로 꺼져가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너무 서글프지 않은가? 노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해바라기처럼 남만 바라보다가 스러져 가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삶을 살아갈 마지막 시기임을 자각해야 한다.

성문영 기자
(sunggoodnews@naver.com)

인생 칼럼



석도익
소설가

사람은 '인연'이라는 수많은 매듭을 짓고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매듭이 얽히고 설키면 풀거나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삶의 이음에 얽혀지는 무형의 매듭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매듭이란 마무리 작업 또는, 어떤 일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매듭을 잘

지어야 아름답고 좋은 법이다. 친구와 의견충돌로 다투 부정한 매듭이 지어졌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매듭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 가게 되겠지만,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

를 잘 설명한다. 사람은 우유부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고, 너무 냉철하면 손해는 없겠지만 인간미가 떨어질 수 있어, 맺고 끊는 데에 정답을 찾기로 몹시 어렵다. 세상 살면서 나를 싫어하고

다 남을 홍보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 치우쳐져 있는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선한 나를 찾는 수련이며 자기 성찰인 것이다.

오늘 하루 어찌다가 불행하게도 안 좋은 매듭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풀고 가자, 오래도록 풀지 않고 있으면 훗날 아주 풀기 힘든 원한의 매듭이 될 수 있다. 인연은 운명이고, 관계는 노력이다.

아흔아홉 번을 참아도 백 번째에 화를 내면, 아흔아홉을 버려다가 화를 낸 것이 된다. 꼬인 것, 영킨 것, 화난 것, 슬픈 것, 억울한 것, 세상 모든 매듭은 그때그때 풀어야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매듭짓기와 풀기

고 우정을 회복할 수 있다. 매듭이 지어진 채로 풀지 않거나 인연의 끈을 끊고 서로 벽을 쌓고 살아간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매듭은 푸는 것이지 자르는 것은 방니다.'라는 옛말이 이

떨시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질투하거나 질타하는 이웃은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기본 바탕이 놀부의 후예 같아 양심은 있으나 심보는 대개가 남을 칭찬하는 쪽보

인생 칼럼



강정식
시인

요즘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83세, 여성은 약 86세에 이른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남성은 80세 초반, 여성은 80세 중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0세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한다. 100세까지 사는 것은 정말 복 받은 일이다. 인생은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과정에서 희로애락을 겪다가 끝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65세가 돼야 노인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에서는 노인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노인 대접을 받으려면 70세나 75세가 돼야 할 가능성이 크다.

초기 인생이다. 이 시기는 배우고, 취업하고, 혼인하며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다. 이때 제대로 터를 잡아야 한다. 그다음은 31세부터 60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다. 이 시기에는 직장에서 승진해 책임자가 되고, 자영업자는 사업을 키워 번

가 된다. 이 시기에는 경험이 축적되지만, 활용할 기회가 적다. 생활은 연금과 저축한 자금을 이용해 이루어지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각종 취미 활동이나 여행 등으로 소일거리 하며 나날을 보낸다.

현재 60세 전후가 대부분 정년이다. 정년 이후 30여 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노인들이 맞닥뜨리는 현대의 쟁점이다. 요즘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덕분에 주변에 건강한 노인이 많아졌다.

인생의 3등분 중 마지막인 노후 생활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인생의 3등분

노인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곧 이러한 변화에 따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대략 3등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처음 한 살부터 30세까지는

창할 때다. 자녀를 키워 혼인시키고 독립시키며, 본인은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평균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나이인 60세가 되면 일할 수 있는 능력과는 상관없이 61세부터 90세까지는 인생의 안락기